

2014 6.22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

제 1 독서 : 신명기 8,2-3.14 ㄴ-16 ㄱ<하느님께서서는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양식을 먹게 해 주셨다.>

제 2 독서 : 코린토 1 10,16-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복 음 : 요 한 6,51-58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성체성혈 대축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에서 성체에 대하여 여러번 강조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리며 불평을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반복하여 여러번 똑같은 말씀으로 강조 하십니다. **“ 내 살을 먹고 내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살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없는 세상입니다. 다만 두려운 것은

혹시나 내가 직장을 잃지 않을까? 밥을 못먹을까? 혹시 나의 신용이 깎이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두려울 뿐입니다. 천당과 지옥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얼마전 마피아의 본거지중의 하나인 이탈리아의 시칠리섬의 칼라브리아에 교황님이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또한 마피아를 교회에서 파문하셨습니다. 지난 1 월에는 마피아의 일원이 세살짜리 어린아이를 총으로 쏘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살해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나 하면 밀린 마약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겠습니까? 그들안에 하느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극적인 이야기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일상 생활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우리 생활안에 배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나 하면 설사 내일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내 일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몸인 살과 피를 모시고 산다면,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고 모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충동, 유혹들을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 신앙에 의해서 컨트롤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남이 영하니까 나도 그냥 받아 먹는다는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성체를 영한다면 내 생활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부속가를 21 절 부터 읽으셨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전체를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체의 은총을, 성체의 효험을, 그 효과들을 주욱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에게는 안준다.”는 귀절도 있습니다. 성체의 신비를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00 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 진리는 그대로 지켜져 내려 왔습니다. 성체의 신비를 부정 하고자 하는 수천, 수만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천주교회의 역사안에서 그 진리는 한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자들이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잘못 가르치지만, 아직도 수억명이라는 천주교 신자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성체에대한 이 진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천주교회에서 신자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과연 얼마만큼이나 성체에대한 신심을 올바르게 갖고 있는가? 결과는 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미사에 참례하여서도, 어서 미사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체는 우리 삶의 중심이며,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체가 중심이 되어 있지않으면 교황님도 필요없고 사제도 필요 없습니다. 사제가 교회에 필요한 이유는 바로 빵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킬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부 자체로는 거룩하고 영적이고 무슨 특별한 인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런 모순 때문에 그 사람안에 **하느님께서** 빵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체에대한 신심이 떨어지다보면 신부를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신자들을 교회안에서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체봉사자중에서 신부를 하찮게 여기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양식을 먹게 해 주셨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8,2-3.14 ~-16 ~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2 “너희는 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기억하여라. 그것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너희 마음속을 알아보시려고 너희를 시험하신 것이다.

3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 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14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주 너희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15 그분은 불 땀과 전갈이 있는 크고 무서운 광야, 물 없이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차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시다. 16 또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몰랐던 만나를 너희가 먹게 해 주신 분이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147(146-147),12-13.14-15.19-20 ~~(◎ 12 ~)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네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네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네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

○ 주님은 네 강토에 평화를 주시고, 기쁨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

○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 서 말씀입니다. 10,16-17

형제 여러분, 16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17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체 송가: 21 절부터 시작하여 짧게 할 수도 있다.>

1. 찬양하라 시온이여, 목자시며 인도자신, 구세주를 찬양하라.
2. 정성다해 찬양하라, 찬양하고 찬양해도, 우리능력 부족하다.
3. 생명주는 천상양식, 모두함께 기념하며, 오늘특히 찬송하라.
4. 거룩하온 만찬때에, 열두제자 받아모신, 그빵임이 틀림없다.
5. 우렁차고 유쾌하게, 기쁜노래 함께불러, 용약하며 찬양하라.
6. 성대하다 이날축일, 성체성사 제정하심, 기념하는 날이로다.
7. 새임금님 베푸잔치, 새파스카 새법으로, 낡은예식 끝내도다.
8. 새것와서 옛것쫓고, 예표가고 진리오니, 어둠대신 빛이온다.
9. 그리스도 명하시니, 만찬때에 하신대로, 기념하며 거행한다.
10. 거룩하신 말씀따라, 빵과술을 축성하여, 구원위해 봉헌한다.
11. 모든교우 믿는교리, 빵이변해 성체되고, 술이변해 성혈된다.
12. 물질세계 넘어서니, 감각으로 알수없고, 믿음으로 확신한다.
13. 빵과술의 형상안에, 표징들로 드러나는, 놀랄신비 감춰있네.
14. 살은음식 피는음료, 두가지의 형상안에, 그리스도 온전하다.
15. 나뉘없고 갈림없어, 온전하신 주예수님, 모든이가 모시도다.
16. 한사람도 천사람도, 같은주님 모시어도, 무궁무진 끝이없네.
17. 선인악인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달라, 삶과죽음 갈라진다.
18. 악인죽고 선인사니, 함께먹은 사람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19. 나뉘성체 조각마다, 온전하게 주예수님, 계시움을 의심마라.
20. 겉모습은 쪼개져도, 가리키는 실체만은, 손상없이 그대로다.
21.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22.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23.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여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24.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51-58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5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52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5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54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58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